

제6호 태풍 '카눈' 영향권에서 벗어난 전국 공항 정상 운영 중입니다.(3보)

- 8.11(금) 09:00 현재, 김포공항, 인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정상 운영 중
- 태풍 영향으로 인한 인명, 공항시설, 항공기 등 피해 전혀 없어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제6호 태풍 카눈이 8.11(금) 새벽 3시경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난 이후, 09:00시 현재 전국 14개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.
- 인천, 김포공항 등 일부 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나, 항공기 이착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.

| 공항 | 인천 | 김포 | 제주 | 김해 | 청주 | 대구 | 무안 | 광주 | 포항경주 | 여수 | 울산 | 사천 | 양양 | 원주 |
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날씨 | 비 | 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구름 | 비 | 비 |
| 바람 (m/s) | 8 | 5 | 4 | 3 | 5 | 4 | 5 | 6 | 5 | 4 | 4 | 3 | 3 | 3 |

* 군산공항은 활주로 전면 재포장 공사 시행으로 '23.4.1부터 비운영중

- 8.11(금) 07:00시 기준, 전국 공항의 운항계획 1,942편 중 17편(국제선 9, 국내선 8)의 취소편이 있으나, 이는 현재의 공항 기상 여건에 따른 결항이 아닌, 항공기 연결 등 항공사 기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.

* (공항별 결항 현황) 인천 6, 김포 3, 김해 3, 제주 2, 대구 1, 무안 2

- 국토교통부는 태풍 영향에서 벗어난 후 전국 공항의 활주로, 계류장, 항행안전시설 등 주요시설을 점검하고, 바람에 날린 이물질 제거 등 정리 작업을 마친 후 모두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(총괄) |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장동철 (044-201-4244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형배 (044-201-4254) |
| | | 담당자 | 주무관 | 이재석 (044-201-4247) |